

# 유리병 업계 동향 및 전망

## 1.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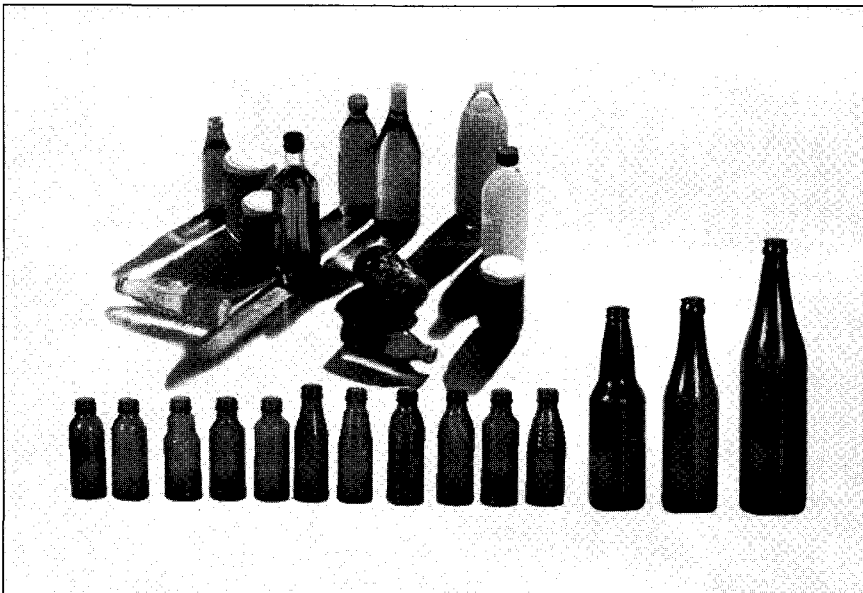
일상생활에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유리는 규사(모래), 탄산 소다, 탄산석회 등의 혼합물을 고온에서 녹인 후 냉각하면 생기는 투명도가 높은 물질을 말하는데, 초자(硝子)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유리는 유리병, 창유리, 이화학용 유리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주요 특성인 투명성, 성형의 용

이성, 화학물질에 대한 내식성등의 기본적인 기능이 있다.

특히 유리병은 주류나 청량음료, 식·음료, 화장품, 의약품 등 각종 포장용기로 사용되고 있다.

현재 국내 유리제품 제조업체는 약90여 개 업체로 이중 약 70여개 업체는 용해로를 갖고 있으며 나머지 20여개 업체는 임대업체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 각종 유리병

산업이 발전하면서 국내 유리 산업 또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열악한 업체가 많아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코자 유리와 관련해 종사하는 우리 모두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제는 우물안 개구리식인 좁은 국내 시장에서의 경쟁에서 벗어나서 세계 시장으로 눈을 돌려 고품질을 통한 수출을 꾀하고, 유리의 특성을 살려 좀더 폭넓은 사용이 가능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본지에서는 한국유리공업협동조합이 조사 발표한 2001년도 통계 자료를 토대로 유리병 업계 동향 및 전망을 하고자 한다.

## 2. 유리병 동향

국내 자동제병업체는 금비, 두산유리, 삼광유리, 수석농산, 안성유리, 태평양, 하이트, 현대 총 8개사로 2001년도 한 해동안 73만7,942톤을 생산해 74만 2,665천톤이 판매됐다.

한국유리공업협동조합이 조사 발표한 자료에 따른 자동제병업체 8개사의 유리병 생산, 판매량을 보면 2001년 한 해동안 지속적인 성장 곡선을 나타내는 건강음료에 사용된 유리병은 21만7,806톤 생산과 21만9,577톤의 판매를 나타냈다.

특히 주류 시장이 활기를 띄고 있는 가운데 소주의 판매량이 늘어나면서 이에 사용된 소주용기는 2001년 한 해동안 12만6,896톤의 판매를 나타냈다.

이에 반해 콜라, 사이다와 같은 청량음료의 경우 유리의 단점인 무거운 점을 대체한 PET용기

나 캔 제품으로 바뀌고 있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유리용기 시장의 매출액이 점차 감소되고 있다.

때문에 유리 업계는 시대 상황에 맞게 기술을 개발하고 유리 고유 특성을 살려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개발과 생산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다시 말해 급속도로 변해가는 소비자 욕구를 파악해 이에 부응한 제품 생산과 수입품에 대처할 수 있는 고품질과 다양한 디자인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 3. 향후 전망

모든 산업에 어려움을 겪었던 IMF 이후 유리 업계는 과감한 구조조정을 실행하고 이에 따라 적정량의 공급을 유지하면서 고가의 가격을 받으며 그 사용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건강음료용 병의 경우 공급부족 현상까지 보이고 있으며 활발한 이는 타 용기로 대체되지 않는 이상 그 사용량을 더욱더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유리 용기의 단점으로 인해 캔과 PET 용기로의 대체가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따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유리의 실용강도를 유지하면서 경량화하여 소비자의 욕구를 어필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연구 개발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유리용기 제조업체는 대체용기 사용이 확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신기술 개발에 힘쓰고 합리적인 설비 투자와 품질 향상에 주력한다면 2003년도에는 유리업계 전망이 밝을 것으로 예상된다. □

권해진 기자